

# 내 삶을 바꾼 책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명사의 서재

(15) 이주현 서울미술관장

90년대 중반, 미술계에 다소 생소 하지만 의미 있는 서적이 나왔다. '50 일간의 유럽 미술관체험'(학교재), 50일간, 유럽, 미술관, 체험이라는 개개의 어휘가 주는 이미지는 다분히 복합적이었다. 당시 이주현 관장은 걸음도 떼지 않은 어린 두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유럽의 낯선 도시를 순례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유럽 낯선 도시 순례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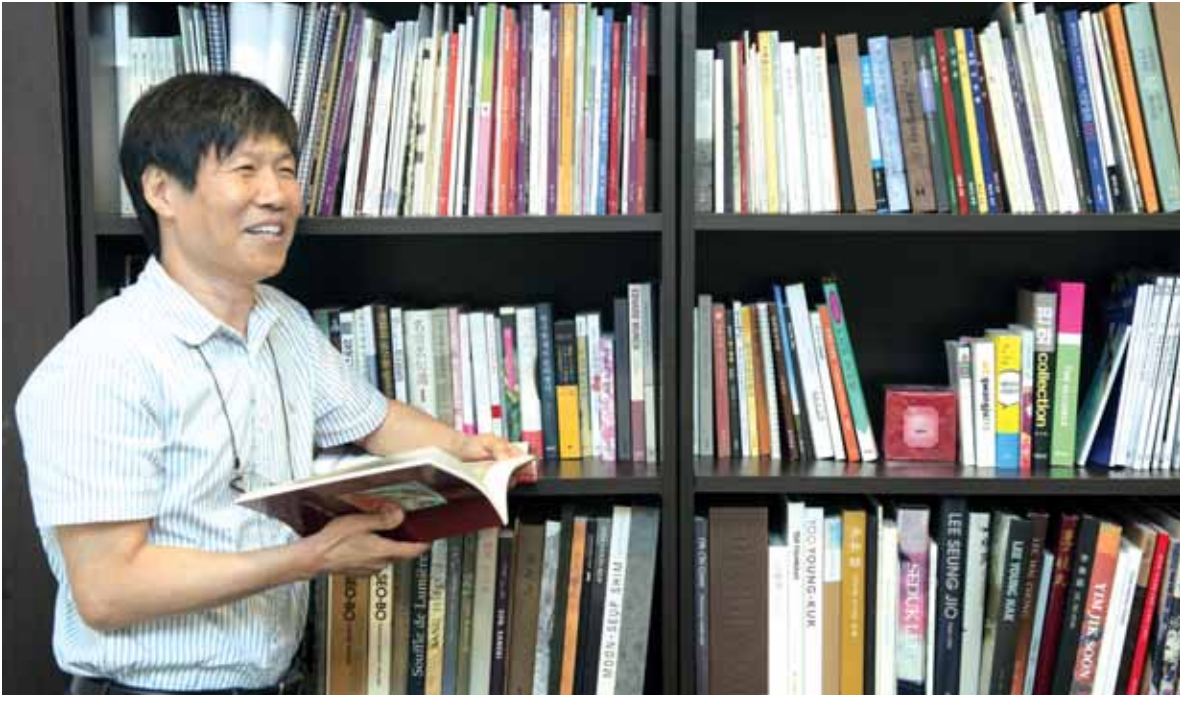
서양화를 전공한 기자 출신이 가족과 함께 유럽 10개국을 돌러보고 쓴 명화감상기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당시만 해도 대중들이 마땅히 읽을 만한 미술 교양서가 없던 터라 '50 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은 출판·문화계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미술관 이주현 관장(52)은 특이한 인생길을 걸어왔다. 현재 서울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지만 한때는 화가를 꿈꾸던 미대생이었고, 미술담당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술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트 스토리텔러'에서 전시기획자로, 그는 변곡점마다 명함을 바꿔가며 인생이라는 화폭에 다양한 그림을 그려왔다.

"이론가와 평론가의 평가보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글쓰기를 지향했어요. 당시 서양 미술 서적이 대부분 번역서 위주라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감성과 맞지 않는 면이 적지 않았죠." 이 관장은 삶과 밀착되지 않는 미술, 나아가 예술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은 삶을 떠난 예술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아니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당위로 읽힌다.

서울 부암동에 있는 서울미술관. 2012년 말에 개관한 이곳은 유니온악플그룹 안병광 회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역작이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안희정관과 이관장을 하나로 이어주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서울미술관을 찾은 기자의 눈에 이 관장은 청년 예술가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청바지 차림, 유행을 타지 않는 머리 모양, 부



이 관장이 생각하는 미술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다. 삶과 밀착된 미술, 함께 호흡하며 함께 공유하는 미술을 지향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미대생에서 기자→아트 스토리텔러→전시 기획자

### "글은 선명한 이미지 떠오를 때 그림 그리듯 써요"

드러움과 날카로움이 묻어나는 인상이 여느 미술관장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때마침 서울미술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야구선수 박찬호 기획전 'The Hero-우리 모두가 영웅이다!' (~11월 30일)가 열리고 있었다.

"기존의 스포츠 관련 전시가 다소 단편적이었던 박찬호 기획전은 문화적 해석을 덧붙인 전시라고 할 수 있지요. 공, 배트, 스파이크, 유니폼 등 각각의 소품은 박찬호 선수 개인의 컬렉션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의미가 투사되어 있습니다. IMF로 상징되는 고통의 시절, 국민들은 그를 통해 다시 일어선, 승리하는 극적인 순간을 맞보았으니까요."

그림은 '뺑'이 안되더라

이 관장이 생각하는 미술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다. 삶과 밀착된 미술, 함께 호흡하며 함께 공유하는 미술을 지향한다.

그러한 인식 기저에는 미술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술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이 특징적인 이미지로 연계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생활사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구조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옥, 복식, 음식, 정원, 풍경 심지

어 요리까지도 미술이라는 미적 시스템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헝가리 미술사학자 아놀드 하우저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맘에 들었죠. 기본적으로 하우저는 사회학의 측면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합니다. 물론 하우저의 논리가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우저는 예술이 그 자체로 내적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과 밀착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 거지요."

그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열독하고 난 뒤 그림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다고 한다.

내루의 '세계사 편력'과 황농문 교수의 '물입'도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책들이다. 전자가 단순한 역사가 아닌, 지식인이 지나야 할 진보적인 사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면 후자는 물입이 창의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중요한 인자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근래에 읽은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은 사고방식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 사고방식이라고 정관념, 편견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저자는 착각, 오류, 실수, 오해가 이 프레임에서 연유하며 이를 깨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직관만큼 좋은 감상법 없어

어린 시절, 그는 미술과 친숙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언론 출판 관련 일을 했는데 늘 그림과 관련된 책을 사주셨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술만 활동을 했다. 흥익대에 다니면서는 틈틈이 유화를 그렸다. 기름으로 캔 물감이 주는 특유의 두터운 질감이 좋았다.

그러나, 그림은 '뺑'이 되어주질 못했다. 아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뺑'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글을 쓰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자는 소박한 생각으로 발을 디딘 신문사에서, 그는 평생의 업이 될 진로를 찾기에 이른다. 대중에게 친숙한 미술 관련 글쓰기였다. "글을 쓸 때 그림을 그리듯 씁니다. 선명한 이미지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컴퓨터 앞에 앉질 않아요."

그는 또한 작품 감상에는 정답이 없다고 강조한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한다. 직관만큼 정확한 감상법은 없다는 것이다. 미술은 이미지와 해석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상상력 게임이기 때문이란단다. /서울=박성천기자skypark@

# 굿모닝! 양림

18~20일 양림동·사직공원 일대... 음악회·미술전시 등 프로그램 다채



100년이 넘는 근대 문화 유산, 김현승 시인의 향기, 골목길에 감춰진 이야기...

광주 양림동은 숨겨진 보물창고 같다. 처음 방문한 이는 양림동의 색다른 모습에 반하고, 한번쯤 찾았던 이들이든 천천히 걸다보면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공간들과, 사연을 만날 수 있다.

양림동을 거닐기에 가장 좋은 시월, '굿모닝! 양림' 행사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18일부터 20일까지 양림동과 사직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광주시 남구와 남구문화원, 그리고 양림동과 인연이 있는 예술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꾸려 함께 마련했다.

◇공연 18일 오후 7시 호신대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앞에서 열리는 '양림! 가을 숲속음악회'는 아름다운 건물과 가을밤, 문화행사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대표 행사다. 이번 음악회에는 '사랑으로'의 가수 해바라기가 출연하며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 첼리스트 오승석, 소프라노 박계·유형민씨 등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또 주흥씨의 샌드아트공연, 이정숙 무용단의 교방무 등도 만날 수 있다.

100년전 지어진 광주의 첫 공인장으로 김필재씨의 성악 무대가 펼쳐졌던 오월기념관도 관객들에게 열린다. '100년의 기억-포럼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공



해바라기

연은 오랫동안 포럼콘서트를 진행했던 함보리씨와 박양희씨 등이 함께 꾸린 프로그램으로 노래와 관재구 시인과 주민들의 시낭송이 펼쳐진다.

또 정용주, 이용호, 통기타 그룹 문계구름 등이 출연하는 '통기타-가을의 노래', 인디언 수니와 목관 4중주단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숲속의 음악가들'이 사직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전시 양림동은 많은 화가들의 자취가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새롭게 양림동에 터를 잡은 515갤러리에서는 '양림동의 화가들'을 주제로 배동신·이강하·황영성·한희원·정운하의 작품을 전시한다. 또 양림미술관에서는 최근 타계한 정추 선생 아카이브전이 열리며 다채 다방에서는 '양림동 사람들'과 골목길'이 진행된다. 양림동 100년 사진전과 한희원 작가의 양림동 연작 20점도 양림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양림동 카페 파우제와 515갤러리 주차장에서 열리는 골목길 영화제는 올해 첫선을 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상영작은 양림동과 인연이 있는 작품이다. 송일하고 출신인 임권택 감독 작품과 정추 선생의 형 정준채 감독이 만든 최승희 일대기를 영화로 만날 수 있다. ◇참여프로그램 50명의 작가들이 자신만의 양림동 명소에서 그림을 그리는 '골목길 화가들', 가족이나 연인에게 시와 그림 사연을 적어 행사 기간 중 전시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양림숲에서 보내는 가을 편지', '순수건에 새기는 가을의 시'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장우 가족의 팬나무, 옛 양림떡 복이집, 기독병원의 100년 된 굴뚝, 옛 송일고 담장 등은 양림동 문화해설사 협회가 선정한 '나만의 양림 명소 15선'으로 꼽힌 공간이다. 그밖에 예술가계 '까로미오'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굿모닝양림.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사직공원 옛 수영장 자리에서 열렸던 '굿모닝! 양림' 전야제 모습. 올해는 호신대 우월순 사택 앞에서 전야 음악회가 열린다. <굿모닝! 양림 추진위원회 제공>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체인점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

서비스표등록증  
 5-18낙지